

원희룡 장관, “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”

-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신속한 개통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지시 -
- 죽전휴게소 방문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주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(금) 오후 1시 30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.
- 원 장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개통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하였다.
 -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구리시를 잇는 128km 구간으로 안성-구리 구간은 '24년, 세종-안성 구간은 '25년 개통 전망이다.
 - 원 장관은 지난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공정이 일부 지연된 상황에 대하여,
 - “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도로망으로, 국민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” 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하였으며,
 -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하여 지난 1월 상생협력 선언식을 주도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과, 선언식에 동참했었던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, 인천지방조달청, 레미콘조합연합회도 현장 참석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.
 - 특히, 행담도 휴게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건설되는 안성바우덕이 휴게소 부지를 둘러보고 비지니스존, 화물차라운지, 옥상 정원 등 명품휴게소 조성을 당부하였다.

- 다음으로 죽전(서울)휴게소를 방문해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, 음식 가격 및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.
- 특히, 휴게소 음식에 대해 점검한 후 “국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용하는 만큼 외부음식점과 비교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, 맛을 다 잡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눈높이가 높은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” 이라며,
- “그런 국민들을 모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도로공사는 수익을 제1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,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익을 국민 혜택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둔 채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할 것” 을 주문하였다.
- 이에,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휴게소 음식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포함한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.
- 한편, 원 장관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증설과 젊은 세대의 소비 취향을 고려한 고객 중심 경영을 하도록 휴게소 운영업체에 요청하였다.
-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인 매장 직원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운영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

2023. 3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